

#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18 | Winter  
vol. 41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18년 겨울호

## 시론

- 3 무술년에 새 희망을 쓴다  
김광호(25회) 부회장

## 동문회소식

- 5 화보
- 8 친구야, 골프가자  
김광식(30회) 사무총장
- 11 팽팽한 대결의 끝은 동문들의 절대적 단합  
임중식(35회) 체육이사

## 학교소식

- 15 2018학년도 약학대학 실무실습 O.T 및 White Coat Ceremony

## 동기회소식

- 18 행복한 만남  
황공용(11회) 동기회장
- 22 마음속 추억의 지문  
양주석(21회) 동기회장
- 26 변함없는 열정의 31회 동기회  
문희석(31회) 동기회장

## 동문이야기

- 33 신완균(7회)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 34 약대 손의동 교수, 나동희 교수  
영광의 학술상 수상
- 35 약대 김흥진 교수,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Oncology"  
학회 연구상 수상
- 35 강승조(3회) 동문이 이끄는 (주)이-글 벳

## 36 회비내역

- 38 만평
- 39 장학기금
- 40 편집후기

## 약국도움이야기

- 29 진균(Fungi)  
편집위원회

# 戊戌年에 새 희망을 쓴다

2017년, 촛불집회로 시작된 정유년이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모두가 새 희망과 새 꿈으로 부풀었던 참 의미 있던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여년 봉직했던 공직에서 나와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약학대학 졸업 후 많은 동기들이 제약회사나 약국으로 향할 때, 어느 누구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공직의 길을 택한 저였기에 그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약사로서 공직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약사법과 관련 법규, 수많은 고시와 지침들과 씨름하며 지내기도 했고, 법규가 바뀔 때마다 약사로서의 소신과 공직에서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약사로서, 국민건강을 제일로 한다는 소명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기에 공직을 택했던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최근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 확대’입니다. 2007년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대통령의 공약 중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있었지만, 약은 약국에서 약사의 지도하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제 소신에 어긋나는 정책이었기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약은 약사의 손에서 관리되어야만 약으로써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끝에 장관



김 광 호(25회)  
부회장

을 설득하고, 외국 사례와 부작용 사례 검토를 하며 다방면으로 해결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시에는 슈퍼로 의약품 판매가 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자부심이 컸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니 슈퍼로 상비 의약품 판매가 확대된 것도 모자라 제산제와 지사제까지 넘어갈 처지에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많은 상념을 뒤로 한 채, 정유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인 무술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루하루 좋은 꽃씨를 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가꾸어서 꽃과 열매가 있는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에 영원불변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증오도, 모두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한 발짝씩 물러서서 뒤돌아보면, 이 모두가 상존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조급함과 욕심을 버리고 매일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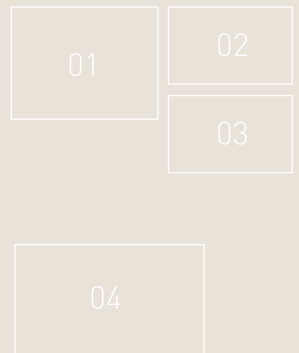
씨앗을 심을 때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정성을 다해 키우다보면 결국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그 희망은 반드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 모두 원하는 모든 꿈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01 9월 2일\_ 여동문회 월례회
- 02 9월 20일\_ 천안분회 모임
- 03 9월 24일\_ 나사모 모임
- 04 10월 12일\_ 모교총장 면담





- 01
- 02
- 03
- 04

01 10월 12일\_ 용인분회 야유회

02 10월 27일\_ 중앙대학교 총동창회 중앙인의 밤 행사

자랑스런 중앙인 상 - 이성우(12회) 삼진제약 대표이사  
 공로패 - 이양현(7회) 동문  
 감사패 - 김창중(11회), 김현태(20회) 동문

03 10월 29일\_ 대전분회 등산대회

04 11월 28일\_ "멘토링2017" 성과보고회







- 01 12월 2일\_ 여동문회 송년회
- 02 12월 2일\_ 수원분회 송년모임
- 03 12월 7일\_ 2017동문회 임원송년회
- 04 1월 10일\_ 신년교례회



- 01
- 02
- 03
- 04

김 광 식 (30회)  
사무총장



# 친구야, 골프가자

2017 중앙대 약대 동문회 골프대회

“친구야, 운동 가자!”

GOLF란 'Green, Oxygen, Light, Friend & Foot, 즉 그린에서 산소를 마시고, 빛을 쬐며, 친구와 걷는 것'이라고 합니다. 탁 트인 풀밭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선후배, 지인들과 오순도순 걸으며 얘기를 나누노라면 짧은 시간의 아쉬움에 중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약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나이 들면 약사인 친구 외에는 대부분 사라진다' 고들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가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골프(golf)는 골프공을 골프채로 쳐서 코스 상에 있는 지름 10.8cm의 구멍에 넣는 운동입니다. 혹자는 골프 코스가 파 72인 것과 그 규칙들이 인생과 같다고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보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규칙을 지켜가며 끝까지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의 분모라는 말이겠지요.





선천적인 재능과 운동신경도 있어야겠지만,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이 연습하고, 자기에게 맞는 장비나 훈련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 더 잘 되는 것도 이 운동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안될 때는 조언도 구하고 자문도 받아야 되겠지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왜 안 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 노력도 안하면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마도 재능은 부모의 은덕이겠지요. 나머지는 본인의 노력입니다.

우리 모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이제 일갑자(一甲子)가 지난 유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낸 흔적들을 모아 오늘날과 같은 명문 약대의 면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모교의 위상을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올려놓을 지속적인 힘의 원천은 바로 우리 동문들의 소통과 어울

림이 알파요 오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소통을 위해서, 그 어울림을 위한 작은 몸짓의 하나로 가을 운동회에서 따로 골프를 독립시켰습니다.

2017년 9월 17일 일요일, 전국의 모든 동문들이 편안하게 참가할 수 있게끔 충청 소재 천안인근의 '히든밸리' 골프장에서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생이 길어진 만큼 이미 우리 동문회도 60이 다 된 그것도 여자 동문이 가장 잘 치시고, 70이 다 된 동문이 롱기스트를 하시기도 합니다. 건강하신 선배님들을 보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길면 또 얼마나 길까요. 푸른 잔디 보며 즐겁게 산소를 마시고 긴장을 풀고 웃고 즐기니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번 골프대회에는 홍종오(21회) 동문회장님, 김수배(21회) 수석부회장님, 김광식(30회) 사무총장까지 각각 개인적으로 상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현태(20회) 전 동문회장님, 함삼균(24회) 전 경기도약사회장님, 김창종(11회) 명예





교수님 등 여러 분들께서도 십시일반으로 협찬해 주셔서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내가 있었던 자리를 더욱 빛내줄 동문들, 그들과 어울려 재미난 하루를 보내며, 또 그들을 위해 자그마한 물품 하나쯤 선물을 내 걸어도 의미 있고 유익한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기꺼이 후원해 주시면 또 얼마나 의미가 크고 재미난 인생이겠습니까.

2018년도 골프대회는 더 많은 동문이 참가하여 샷건 방식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참가하지 못한 동문께서는 올 해에는 꼭 참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의 약학도인 우리 동문들의 축전이 얼마나 재미나고 성공적인지 모두 함께 어울려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주변 모두에게 보여 줍시다.



## 2017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골프대회

일시 2017. 9. 17. 장소 히든밸리 구성 27팀(총 108명 참석)

### 개인 시상내역

우승(신페리오)	한성희(21회)	다보기(다복)	김영희(30회)
메달리스트	이강욱(21회)	다따블(오리)	강희운(22회)
장타상	남)오덕환(31회)	분발상(스트로크 꼴찌)	유완진(32회)
	여)김윤경(32회)	아차상(준 메달리스트)	조한군(26회)
니어상	염정록 명예교수	으뜸상(교수님 1등)	염정록 명예교수
준우승(신페리오)	조용백(26회)	대박상(97타)	임종철(19회)
3위(신페리오)	최병호(12회)		한봉길(27회)
여자1위(신페리오)	윤미숙(30회)		김향수(31회)
행운상	조양연(32회)	베스트 드레서	곽나윤(27회)
다버디상	김현태(20회)	참신상(가장 젊은 기수)	박석(46회) 수원분회
다파상	이강욱(26회)	원로상(가장 먼 지역에서 참가)	오황영(22회) 제주분회

### 단체전

기수	우승(26회 동기회)
	준우승(30회 동기회)
	3위(20회 동기회)
분회	우승(용인분회)
	준우승(안양분회)
	3위(대전분회)
최다 참가 기수	26회 동기회



임 중 식 (35회)  
체육이사

팽팽한 대결의 끝은  
동문들의 **절대적**  
**다** **합**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제47회 모교의 날 체육대회

어느 날 우리 동문회 김광식 사무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약대 동문회 체육이사를 맡으라고 하신다. 전국약사축구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할 때 선배가 경기도약 임원으로 대회 참가 담당 부회장을 할 때 만났던 인연이 이어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듭된 고사에도 체육대회 진행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어찌 되었든 임무를 맡았으니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었고, 이왕 참여하게 되었으니 가급적 활기차게 뛰어서 참가한 동문 선·후배들이 '다음에도 체육대회에 꼭 참가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 주변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동문회 사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체육대회와 골프대회를 분리하여 형편에 따라 참여하는 동문들이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골프대회는 9월 17일 충북 진천의 히든밸리CC에서, 그리고 본 체육대회는 추석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년보다 1주일을 늦춰 10월 15일 중대부속중학교 대운동장에서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늘 비슷한 포맷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해마다 참여하는 동문들이 식상하거나 지루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전년도의 반응이나 평가를 참고하고 새로 도입했으면 좋아할 종목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종목을 선정했다. 물론 같이 참여하는 동문가족들, 특히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종목 선정이며 선물 등도 따로 마련했다.







**홍종오(21회) 동문회장은** 개회사에서 “가을 분위기가 완연한 휴일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교의 날 체육대회가 즐거운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완균(26회) 모교학장은** “동문 가족과 재학생, 그리고 교수 모두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특히 내년 창학 100주년이 되는 모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참석한 내빈들의 대표로 **조찬휘(15회) 대한약사회장은** “중앙대 약학대학 동문회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약학대학 동문회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바 47회째를 맞이한 체육대회가 역사와 전통을 디딤돌 삼아 더욱 융성한 행사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같은 동문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이어 남녀 동문들을 대표하여 선수선서식을 거행하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 풀기를 마친 후 열띤 종목별 경기가 진행되었다.

바둑, 테니스, 족구,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생맥주 빨리 마시기, 축구, 줄다리기 등의 종목을 가지고 때로는 지역 동문회 별로, 때로는 기수 별로, 때로는 홀수·짝수 기수가 한 팀이 되어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넉넉한 웃음으로 게임 자체를 즐기면서 학창시절 그 모습 그대로의 선·후배 모습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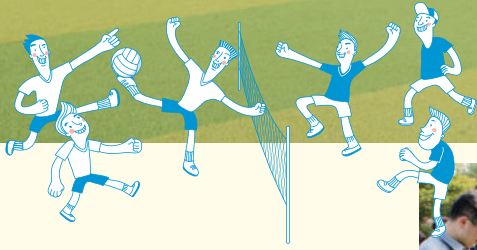
특히 여동문들은 어찌나 생맥주를 그리도 빨리 잘 마시는지, 혹시 학창시절에도 말 술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해 응원하는 동문들의 찬사를 받았고,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 게임에서는 절대적 단합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팽팽한 대결이 펼쳐져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들의 기개를 드높이는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체육대회에는 최종묵·임완호·유정사·윤대봉·장재인·김현태 고문을 비롯해 한석원·김창중·손의동 자문위원, 이경옥·김홍진 감사·곽나윤 여동문회장, 양덕숙 여동문회 고문, 황완균 학장과 현직 교수, 손동헌·허인희·염정록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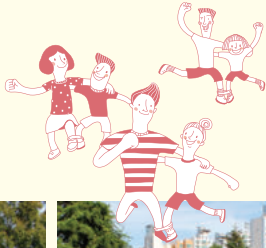
이외에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정태원 이화여대약학대학 개국동








1. 바둑대회 2. 족구대회 3. 줄다리기 4. 투호놀이 5. 신발던지기 6. 생맥주 빨리 마시기







 **종목별 수상**

- 종합우승 안산 분회
- 우승 26회 동기회
- 3위 34회 동기회
- 최다 참가 동기회 34회 동기회
- 최다 참가 분회 안산 분회
- 족구 1등 : 안산 분회, 2등 : 34회 동기회, 3등 : 용인 분회
- 테니스 1등 : 34회 동기회, 2등 : 약제반, 3등 : 26회 동기회
- 제기차기 1등 : 안산 분회, 2등 : 36회 동기회, 3등 : 34회 동기회
- 윷놀이 1등 : 안산 분회, 2등 : 38회 동기회, 3등 : 13회 동기회
- 생맥주 빨리 마시기 1등 : 34회 동기회, 2등 : 26회 동기회, 3등 : 39회 동기회
- 바둑 1등 : 김용호(21회), 2등 : 백운경(21회), 3등 : 이현희(22회)

문회 회장, 장은숙 숙명여대약학대학 개국동문회 회장 등이  
우정 자리를 함께 하여 참여한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무엇보다 추석연휴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간고사와 겹치게  
된 상황이었지만, 도서관에서의 시험준비를 마다하고 기꺼  
이 선배들의 행사에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열성적으로 뛰어  
준 재학생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80년대 후  
반부터 90년대 학번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바 동문  
회 행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지만 언젠

가는 동기별 체육대회를 기획해 봄은 어떨까 싶기도 하다.  
본 행사가 끝나고 지역 별로, 기수 별로 삼삼오오 하루 종  
일 뛰고 소리치고 하느라 피곤해진 몸을 추스르기 위한 소  
주 한잔을 나누기 위해 이런저런 모임장소로 분주하게 발  
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정겨웠다. 열심히 했음에도 아쉬움  
은 늘 남는 법,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다음 번에는 더 잘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내는 계기로  
삼는다.

선후배 동문들의 무한한 건강을 기원하며, 내년에도 꼭 다  
시 만나자는 약속을 끝으로 각자의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화이팅!!!

2018학년도 약학대학

# 실무실습 O.T 및 White Coat Ceremony

한 해가 저물어가는 2017년 12월 8일, 약학대학 대강당(102관 314호)에서 2018학년도 현장 실무실습을 앞둔 5학년 재학생들 115명을 대상으로 약학대학 실무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무실습교육 선서식(White Coat Ceremony)이 거행되었다.

몇몇 다른 약학대학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모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행사로, 졸업 후 약사로서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서 재학 중 배운 과정들을 현실 속에 적응시키며 내실을 다지는 실무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격려하고 예비약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행사였다.



## 2018학년도 약학대학 실무실습 O.T 및 White Coat Ceremony

일시 : 2017년 12월 8일(금) 18:00    장소 : 약학대학 대강당





##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문



### 선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내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합니다.

하나, 나는 오늘 이 순간부터 고통 받는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 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어떠한 생명이라도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언제나 나의 모든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항상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약학과 관련한 모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대중의 이익을 위한 모든 법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고의 도덕적 가치 규범을 따르겠습니다.

하나, 나는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이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대표 정 영 섭







황광우(35회) 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학생대표로 정영섭 학생회장과 이민규, 이현택 과대표 등 총 3명의 학생에게 황완균 모교학장이 직접 실습가운을 입혀 주고 실무실습교육생의 명찰을 부착해 주는 동시에 참석한 전 학생들이 가운을 입는 의식인 화이트코트 착의식이 중심이 되었다.

황완균(26회) 학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대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이, 간호대에는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어 각자 직역에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도 디오스코리데스 선서식을 통해 전문직능인으로서 약사의 자긍심을 가슴 속 깊이 아로새겨 환자들을 위한 순수한 봉사정신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대표가 참석자 전원과 동심일체를 이뤄 약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슴속 깊이 아로새기는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문을 낭독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인류를 위해 바치겠다는 각오를 시작으로 약학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따른 모든 조항들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선언함으로써 예비약사로서의 첫출발을 다짐하는 엄숙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착의식과 선서문 낭독을 끝낸 후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 전원이 단상 앞으로 모여 약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진행했으며, 이어 실무실습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황 공 용 (11회)  
동기회장



## 행복한 만남

###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3동기회(11회) 졸업 5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



#### 프롤로그 - '행복한 만남' 호 출항

196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1200\$이던 시절 대학입학 자격 국가고시를 통해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한 우리 63동기들은 심각한 경제지표로 등록금과 학자금 마련을 위한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우주의 별빛이 달려올 것 같은 freshman의 꿈에 이끌리어 약사의 긴 여정에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달래며 출발했다.

그리고 4년간의 약학대학 시절을 마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50년, 흔히 등산할 때 주위의 경치를 돌아볼 사이도 없이 앞서사람의 뒷꿈치만을 따라 정상을 향하듯 세월의 무게를 이기려고 달려온 주마간산(走馬看山)의 세월이 우리를 人生的 작은 언덕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중앙대 약학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중앙약대 11회 졸업생이 약대의 역사를 어깨에 매고 있다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음은 61회까지 배출된 후배들을 볼 때 새삼 가슴에 다가온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 H. Carr)는 “역사란 과거사실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과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석, 평가할 때 확립된다”라고 했고, 철학자인 키케로(Cicero)는 “자신이 있기 전의 일을 모르는 것은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역사는 성숙한 자아를 갖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파했다.

그렇다면 우리 63동기회는 중앙대 약학대학에 어떤 역사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 졸업 50주년을 맞는 11회 동기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바다를 품는 백사장이  
밀알같은 모래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63동기회의 모래알 같은 장학금이  
조성된 것이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장학재단이라는  
백사장을 이루어 많은 후배들이  
수혜받을 꿈을 실현시키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



그 고민이 우리 63동기회가 50주년을 맞이하는 최대의 화두였고, 이는 2016년 11월 11일 본인이 동기회장을 맡게 되면서 현실이 되었다.

2016년 12월 3일 준비위원회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18일 소위원회 1차 모임을 가졌고, 이어 2017년 4월 8일 소위원회 2차 모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리되었다.

1. 졸업 50주년을 “행복한 만남”으로 명명
2. 동기회원 전원 記名장학금 10만원 등, 회비 20만원
3. 행사일시 : 2017년 10월 21일 약학대학 11층

이상과 같이 골격을 만든 후 그동안 연락이 확실치 않던 회원들의 규합을 위해 김창중 동기가 만든 카톡방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이광웅 동기의 지원과 잊혀진 동기를 찾아내는 대사의 역할을 담당한 고승하 동기, 동기회원 단합에 앞장선 직전회장 김승업 동기, 회원동정에 촉각을 세운 이범진, 장헌소 동기, 여자동기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선한 이명자 동기 등이 중심이 되어 졸업 50주년 “행복한 만남”호를 출항시켰다.

그리고 15차례의 SNS 서신을 통해 동참을 호소한 결과 73명 동기들이 앞다투어 회비를 납부하며 절대적인 동의를 표해 주었다. 이는 확인된 동기명단 134명 중 작고한 26명, 해외이주한 동기 16명을 제외한 92명 동기 중 80%에 해당하는 높은 참여율이어서 우리 모두가 놀랄 정도이자 63동기회의 자부심을 진정으로 느끼게 한 일이었다.

특히 미국에서 회비를 보내온 김순호, 김광수, 이광웅, 장순걸, 김문엽, 윤희배 동기와 특별찬조금을 전해온 송림희 (김승업 회장), 청우회(김철홍 회장), 박월준 동기 그리고 필자가 속해있는 서초구약사회장, 서울시약사회장의 후원금 역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는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

### 정겨운 동행 - 서울시티투어, 행복한 만남

식전행사인 서울시티투어는 경비전액을 김승업 직전회장이 협찬한 가운데 오전 10시 리무진에 탑승한 이범진 팀장을 위시한 11명의 동기들(황공용, 김승업, 장헌소, 고승하, 김철홍, 서세양, 송상부, 이훈, 황문상 및 在美동기 김문엽)이 구



반포역을 출발, 남산케이블카를 경유하여 남산타워 정상에서 서울전역을 내려다보는 시원한 시경을 즐겼으며, 이어서 청계천변을 거니는 즐거움과 북악스카이웨이 드라이브를 통해 50년 만에 만나는 자연과 동기들의 정겨운 동행으로 행복한 만남의 전주곡을 감상했다.

그리고 저녁 6시 모교 11층 행사장 앞에서 임원진은 물밑듯이 속속 입장하는 동기들과 악수하며 이름표를 통해 낯설은 얼굴에서 옛 모습을 찾아내는 기쁨으로 “행복한 만남”의 팡파래를 울리게 되었다.

더욱이 퇴임한 원로교수 은사이신 한덕룡, 손동헌(1회), 이광표(1회), 김기호(4회), 허인회(4회) 명예교수님 외 홍종오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대신해 김종호 부회장이 대리참석했고, 황완균 학장, 손의동 전임학장이 자리를 메워 50주년 행사장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저녁 6시 10분에 김철홍 동기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회장인사에 이어 원로은사이신 두 분 한덕룡, 손동헌 박사님의 축하메시지는 우리 동기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다.

이번 졸업 50주년 “행복한 만남”이 주봉이라면 문화행사로 이뤄진 음악연주와 장학금 전달은 좌·우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Livingstone 4중주가 연주한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와 앙골로 연주한 고향의 봄은 1963년 20대 시절 젊음



### 장학기금 납부명단

(입금일자 순)

김승업, 박상희, 박희경, 서영복, 신명승, 양계창,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송상부, 장현소, 허정범, 황공용, 이범진, 이명자, 조명숙, 조명숙, 최민재, 박월준, 하정선, 최계순, 채신자, 홍금자, 이명옥, 임태순, 윤형배, 이광웅, 박찬희, 정영환, 김미자, 김형균, 이석태, 이남진, 하만웅, 이교문, 김정길, 이종만, 전창환, 김광수, 구자억, 장순걸, 김순호, 김명우, 박방래, 한창희, 이광재, 강일성, 남기택, 박신규, 이철규, 함종한, 황문상, 김재곤, 김창중, 손영수, 이범웅, 차영진, 정덕호, 정해운, 김문엽, 고승하, 박승보, 안홍신, 유병태, 황한성, 유용운, 서정일, 최준로, 이훈, 심재관, 윤대장, 유홍문 이상 73명





의 고향인 모교를 더 가까이 떠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은 우리 11회가 최초로 記名으로 전 동  
 기들이 10만원씩을 쾌척한 일이었고, 73명의 명단과 함께  
 7,300,000원을 동문회 장학기금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바다를 품는 백사장이 밀알같은 모래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63동기회의 모래알 같은 장학금이 조성된 것이다. 중  
 앙대학교 약학대학 장학재단이라는 백사장을 이루어 많은  
 후배들이 수혜 받을 꿈을 실현시키자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  
 경 말씀대로 73명 동기들의 성명이 기재된 장학금의 씨앗  
 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후배들이 과실을 수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에필로그 - 가운을 입고

끝으로 이번 졸업 50주년을 기념한 “행복한 만남”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기꺼이 시간을 내준 동기들 모두에게, 또한  
 특별히 회비를 납부하고도 당일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졸업 50주년 기념행사가 무산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모교 명예교수이  
 며 우리 동문회 자문위원인 김창중 박사가 50주년 행사 준  
 비모임을 주선한 후 필자가 동의회장에 선임되어 이 행사  
 를 이끌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더욱이 본인이 집필  
 한 병태생리학 책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제공한 김창중  
 박사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이번 행사에는 50년 만에 만나는 동기들을 따뜻하게 받아  
 주는 모성애같은 여자동기들의 애씀이 더욱 빛났는데, 여자  
 동기 12명이 전원 참석하여 11회 동기회의 여성파워를 빛  
 냈고, 특별히 전주에서 올라온 조명숙 동기는 자작시 “가운  
 을 입고”를 낭독하여 중앙대 약학대학 63동기회 동기들의  
 藥師상을 더욱 각인하게 해주었다.

## 가운을 입고

조명숙

가운을 입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그 엄숙함과 산뜻함과 책임감과  
 가운 속에 감추어진 내 비밀이여

흰 가운이여  
 너는 나의 성정말씀  
 터질듯한 분노도 억음함도  
 너를 걸치는 순간  
 나는 명량한 장사꾼이 된다  
 어서오세요!

엄마, 나 100원만  
 가운을 잡아 흔드는 5살짜리  
 그래 왜?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선뜻 내 주었었지  
 태평양같은 마음이 가운 속에  
 숨겨져 있었던가?

가운을 입고 조제실에 서면  
 모든 약들이 나와 같이 곰살곰살 움직인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의 꿈틀거림이 있다

흰 가운은 내 마음의 노래요  
 비둘기처럼 평화의 상징이요  
 모든 병을 이겨내는 백의의 천사요

어떠한 아름다운 의상도 나에겐  
 가운만 못하리  
 흰 가운은 나의 패션이여!

오늘도 나는  
 정성껏 다려놓은 가운을 가지고 출근한다

양 주 석 (21회)  
동기회장



## 마음속 추억의 지문

### 21회 동기회 졸업 40주년의 해 송년모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1회 졸업생으로서 30대 그리고 40대와는 또 다른 50대 인생의 챕터에서 2008년 1월 19일 졸업 30주년 행사를 치른 이후 10년을 하루 같이 정말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새해 들어서 2월 25일 이상준 회장과 송진용 총무의 주관아래 졸업 40주년 기념 모임을 가졌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이순(耳順)의 나이, 또 다른 새로운 챕터에서 말입니다.

그 행사 이후 동기회를 위하여 10년을 봉사해온 이상준 회장과 송진용 총무가 회무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고 차기 회장으로 양주석을 지명하였으나 회장 직분을 여러모로 고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기 동기회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홍종오 회장의 취임과 함께 총동문회 주관 기수로서의 소명이 있다기에 김대일 총무와 함께 2년의 임기동안 동기회를 위한 머슴으로서 모임과 소통의 명석을 준비하기로 의기투합하고 회무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에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못 본 추억의 얼굴 한 번 더 만나는 기회를 갖자는 의견이 많았기에 다시 졸업 40주년의 해 송년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기억, 기억은 우리 삶의 여정에 남겨지는 지문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날 만들어낸

추억이 없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만나 그때를 회상하면서

뒤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만 펼쳐지거나

다른 누군가가 남긴 지문만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



### 통즉불통(通卽不痛) 불통즉통(不通卽痛)

- 소통의 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아프면 통하지 않는다

송년모임을 준비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동기들끼리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김대일 총무와 함께 분담하여 동기들의 연락처를 재확인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새롭게 정비하여 일차적으로 사이버 만남의 명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화방 개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전화통화 할 때 정말 30년 내지는 40년 만의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반갑게 응대해 준 모든 친구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태식 인천 동기회장을 비롯한 인천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이 큰 힘이 되어 주었기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부산에 거주하는 노재하 동기의 거리를 불문한 열정적인 참여가 총무와 저에게는 큰 자극이 되고 힘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대화방을 통한 소통이 활성화 되었고 카톡방을 통하여 여러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되새김 하며 송년모임의 시간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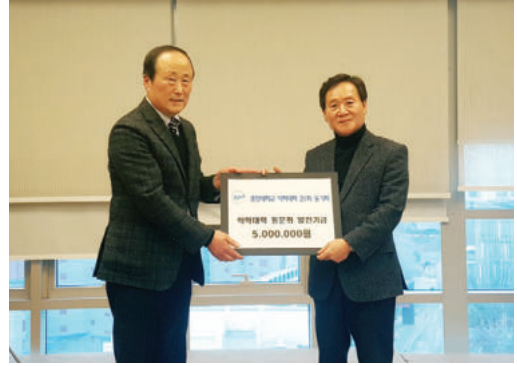
지난 6월 18일 전임 회장단으로부터 회무를 인수인계 받은 후 인천 동기모임을 비롯해 동기들의 애경지사에 참여하며 마음을 같이 하였고, 그런 만남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 친구들로부터 우리 21기 동기회를 위한 많은 조언과 함께 열심히 동참하여 성황리에 송년모임 행사를 진행하는데 힘이 되어 주겠다는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21기 동기회의 2017년 하반기의 화두는 졸업 40주년의 해 송년모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10월 16일 약대 총동문회 체육대회를 마치고 우리 동�회 뒤풀이가 안동장에서 12명의 동기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도 역시 화두는 송년모임을 통한 친구들의 만남이었으며, 또한 졸업 40년을 기념하여 동문회에 기부하는 기금 모금과 송년행사를 위한 개인 회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솔직히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회비에 대한 금전적인 협조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73학번 21기 동기들은 정말 '엄지 척!'이었습니다. 100만원씩 큰 금액을 선뜻 기부 약속해





“졸업 40주년 기념행사에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며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동안 못 본 추억의 얼굴 한 번 더 만나는  
 기회를 갖자는 의견이 많았기에 다시 졸업 40주년의 해 송년모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 친구들은 물론 송년모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치 못하는 친구들까지도 서슴없이 회비를 납부해 주어 회무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이즈음에서 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사는 동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까를 말입니다. 초년의 운도 아니고, 중년의 성공도 아니고, 부와 명예일까? 권력과 지위일까? 인생 후반부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에 이 순간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는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할까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대일 총무도 역시나 “우리 함께 즐기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친구들을 위한 송년모임을 위해 투자해보자”며 독려 하였습니다.

12월 3일 약학관 11층 송년모임의 장소를 예약 해놓고 보니 긴장감이 고조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교수님 초대를 위하여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덕용 교수님을 위시하여 손동헌, 이광표, 김기호, 허인희, 임철부 교수님과 통화하였고, 아쉽게도 건강상 참석이 어렵겠다는 임철부 교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교수님들께서

흔쾌히 참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학시절 학장이셨던 한덕용 교수님께서는 직접 방문하여 인사를 드렸는바 난청을 빼고는 92세의 연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학창시절 생약학 교수님 시절의 카리스마는 없으시고 다정다감한 할아버지 같이 정말 포근히 맞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기념 선물도 준비하고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기를 독려하면서 송년모임 행사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다보니 드디어 12월 3일 그날이 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 행사 준비를 위해 약 두 시간 일찍 행사장에 도착해 보니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인천에서 온 고영근 친구 그리고 전임 총무 송진용 친구가 반겨 주었습니다. 역시 좋은 친구들, 감사!

감기몸살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처음과 끝을 준비하고 도와준 동문회 박은희 실장과 함께 기념선물 봉투를 챙기고 플랭카드를 설치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평소 우리 동기회와 총동문회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김수배 친구가 행사 준비 일손이 되어 주었고, 게다가 김종호 동기(일동생활건



강 대표(이사)가 송년모임에 참가한 친구들을 위해 정말 예상치 못한 깜짝선물로 행운상 경품으로 고가의 정수기 여러 대와 개인 선물 보따리를 한아름 준비해 주었습니다. 와~~ 역시나 통이 큰 우리 김종호 대표(이사)님,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남의 설렘으로 가득 찬 발걸음의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행사장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와~!○○○너 정말 오래간만이다. 이게 몇 년 만이냐?” 이 멘트가 이구동성이었습니다. 뭐 더할 문장이 있었겠습니까? “야~ 너! 옛 모습 그대로네~!” 포옹하며 악수하며 왁자지껄 환희와 행복이 행사장에 가득해 집니다. 행복 그 자체지요!!!

교수님께서도 한 분 두 분 도착하십니다. 이제 연로하시어 한눈에 보아도 걸음걸이가 불편하시지만 다시 한 번 스승님에 대한 존경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며 동기들 모두 깊이 허리 숙여 정말 공손히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뵈고 인사드리지 못한 송구스러움과 함께...

이제 송년행사를 시작합니다. 행사의 전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그리고 즐겁고 흥겹게 진행해 준 김종호 친구, 또한 실수가 많아서 더욱 우리를 즐겁게 그리고 큰 웃음과 함께 박수를 받았던 초보(?)마술가 신상길 친구 덕분에 우리 송년모임 행사는 크게 행복했습니다. 참석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서에 따라 마이크를 들고 여러 감회를 이야기 하면서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송년모임의 주인공이 되었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추억, 기억은 우리 삶의 여정에 남겨지는 지문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날 만들어낸 추억이 없었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만나 그때를 회상하면서 뒤 돌아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만 펼쳐지거나 다른 누군가가 남긴 지문만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졸업 40주년 기념 만남의 장을 확실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 추억의 지문으로 자리 매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 동기회를 위해 일심으로 희생 봉사 동행해 주신 김대일 총무님께 더욱 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추억의 지문을 새기는 일은 앞으로 45주년, 50주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맥아더 장군의 명언을 올리며 졸업 40주년의 해 송년모임에 대한 감회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1.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데 있다.

2.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사람은 햇수와 더불어 피부에 주름이 가겠지만 세상일에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마음에 주름은 가지 않을 것이다.

3. 인생 마지막까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용기다.  
용기를 잃어서는 안된다.

문희석 (31회)  
동기회 총무



## 변함없는 열정의 31회 동기회

### 중앙대 약대 83학번 졸업 30주년 행사를 마치고



전화벨이 울렸다. 오랜만에 보는 번호다. 이성표, 우리 중앙대 약대 83학번 동기회장 전화다. 현재 개인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저런 일로 연락을 하곤 하지만 최근은 오랜만이다. 내용인즉슨 우리 약대동기 졸업30주년이라 행사를 준비하자는 것이었다. 하, 벌써 졸업30주년이라니. 반가운 전화이긴 했지만 잠시 지난 세월이 머릿속에서 오래된 환등기처럼 돌아갔다.

1983년 2월말 입학식이 열렸다. 물론 대학교 입학식에 대한 많은 기대나 꼭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난 참석하고자 학교를 걸어 올라갔었다. 내 기억으로는 비가 약간 왔던 것 같다. 서울 생활이 처음이었고 학교도 낯설었던 루이스가든과 회색빛 약대 건물, 운치 있었던 영신관을 지나 도서관을 거쳐 학교운동장에 도착하여 간단한 입학식 행사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1987년 동기들은 졸업을 했다. 물론 나처럼 군대나 다른 일로 조금 늦게 졸업을 한 친구들도 있지만. 전화를 받고 옛 생각이 나서 졸업앨범을 펼쳐 보았다. 낮익고 정겨운 얼굴들. 교수님들 사진도 보인다. 학교 다닐 때는 어렵게 느꼈던 분 들인데 지금 보니 다 젊으시고 멋지시다. 루이스가든 앞에서 졸업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또 조별로 모여 사진을 찍었는데, 남자들은 어색하지만 양복들을 차려입고, 여자들은 비슷한 파마모양을 하고 나름대로 멋을 부리고 사진을 찍었다. 색바랜 흑백 사진이지만 밝고 정겨운 모습들이다.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2017년 9월 우리는 사당역 부근 카페에서 만났다. 과대표를 맡았던 이성표, 이미자, 김미숙 그리고 모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어서 김하형 교수는 검사검사 나오게 되었고,

“

반가운 얼굴들.

30년 전으로 돌아가

언제든 애기꽃을 피울 수 있는

다정한 동기들.

지금까지 잘 살아 주어 고맙고

또 보고 싶구나.

”





나와 오경숙은 과대표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이유로 인해 같이 나오게 되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한 팀으로 졸업 30주년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성표가 예전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동문회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해 주었고, 우리들도 각자 책임을 나누고 동기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동기들은 앞에서 막 나서서 주도하는 스타일이 아닌 편인 것 같다. 각자 스스로 잘 알아서 생활하고 하지만 정이 많은 편이어서 누가 부탁하면 잘 호응은 해주는 것 같다.

우리는 많은 동기들이 같이 볼 수 있는 단톡방을 개설하여 소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3번 정도 더 만나서 모임을 준비하였다. 막바지에는 김하형 교수 방에서 모여 최종 점검을 하였다. 모교에 동기가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드디어 대망의 행사일, 새로 지은 약대 건물 11층 유니버시티 클럽. 우리 임원들이 먼저 도착하여 행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장 앞이 분주하다. 알고 보니 우리 보다 10년 전에 졸업하신 21기 선배님들께서 졸업 40주년 행사를 하신단다. '30주년 행사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같은 날 하다 보니 행사장도 북적거리고 아는 분들,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서 좋았다.

시간이 되어 가니 하나 둘씩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동기들은 여자 비율이 2배 정도이고 그러다 보니 모든 모임에서 여성들이 득세(?)를 하는 편이다. 오늘도

그럴 확률이 무척 높아 보인다.

서울은 물론이고 대구, 제주 등지에서도 열 일 제쳐놓고 올라준 동기들이 모여서 얼굴을 부비고 삼삼오오 반가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은사님들도 오늘 선배님들과 같은 날 행사를 하다 보니 예전 보다는 더 많이 참석을 하신 것 같다. 은사님들을 기다리는 동안 동기회장의 제안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그런지 존댓말을 하다가 한 친구가 편하게 반말로 하자고 제안을 하니 다들 자연스럽게 '얘들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다.

개인소개가 끝날 무렵 은사님들께서 입장을 하셨다. 오랜만에 뵈는 은사님들은 주름은 조금 느셨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였고 건강하신 것 같아 기뻐다. 물론 30년이나 지난 지금이어서 세월을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수님의 모습을 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 한덕룡 교수님, 손동헌 교수님, 이광표 교수님, 허인회 교수님, 김기호 교수님, 염정록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셨다.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홍종오 동문회장님의 격려사, 황완균 학장님의 축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건배제의로 흥이 고조되었다. 그리고 작으나마 동기들이 모아준 금액의 일부를 동문 발전기금으로 전달하였다.

사실 행사시작과 더불어 김하형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동영상(물론 따님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을 보여주고 흥을 돋우려 했는데 행사장 시스템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아쉽게도 틀어주진 못했다. 단톡방을 통해 배포했는



데 이문세의 음악을 배경으로 1부에는 우리 예전 사진(입학, 졸업, MT, 각 실험반 써클 행사사진) 등이 있고, 2부에는 현재의 학교 모습과 핸드폰에 들어있는 현재의 각자 모습을 이용하여 편집한 사진들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며 미소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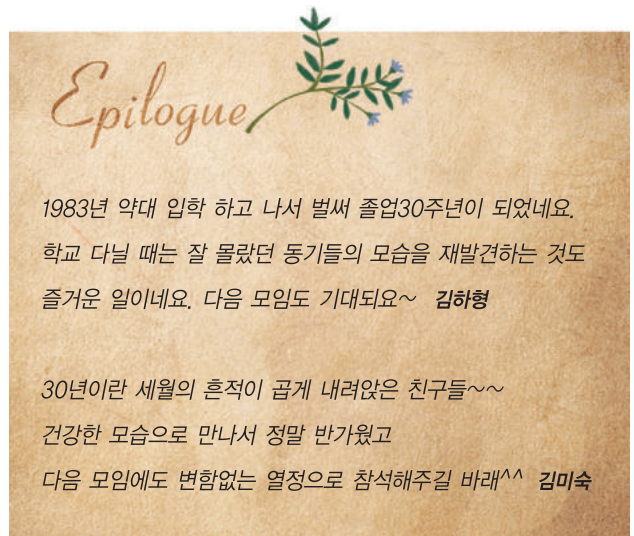
1부를 마치고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하였고 이어 2부 행사를 진행하였다. 은사님들의 덕담과 건배 제의가 이어졌고 사제간의 딱딱함보다는 인생 선배님으로부터 다정다감한 말씀을 듣는 느낌이었다. 은사님들의 말씀이 끝날 무렵 한 덕룡 교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혹시 무슨 실수가 있었나 긴장하고 다가갔는데 낮은 톤으로 '인사가 끝났으면 내가 노래 한자리 할까?' 하시는 것 아닌가. 너무도 흔쾌히 말씀해주시고 나가셔서 힘찬 독일어 노래를 불러 주셔서 모두들 흥이 최고조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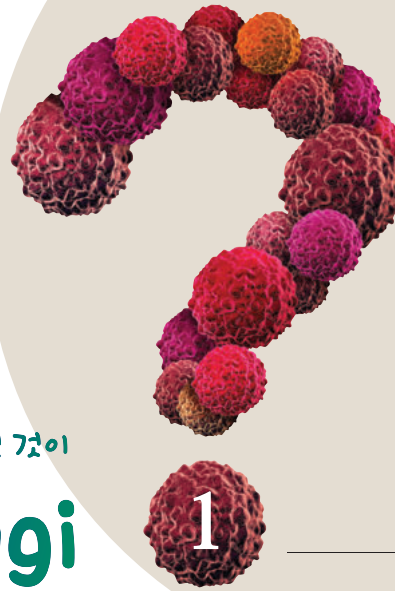
그리고 이어 칼라무스 합창단의 공연. 김미숙이 학교 다닐 때부터 칼라무스를 열심히 했고 요즘도 선·후배들과의 모임을 갖고 있는 터라 섭외가 되어 참석하여 공연을 해주었다. 이젠 우리도 이런 애들을 아들딸로 두고 있는 나이라서 마냥 예뻐 보였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앵콜이 나오곤 했다. 2부 여흥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지만 다들 아쉬운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고 사진도 찍고 했다. 우리는 또 2차 자리로 옮겨서 못다한 얘기를 하느라 시간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잠시나마 우리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후일을 기약하면서 헤어졌다.

반가운 얼굴들. 30년 전으로 돌아가 언제든 애기꽃을 피울 수 있는 다정한 동기들. 지금까지 잘 살아 주어 고맙고 또 보고 싶구나. 이번에는 10년이 아닌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볼 수 있기를 바라본다.

이 모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동문회 임원, 간사님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학장님과 은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참석한 동기들, 그리고 참석 못했지만 물심 양면으로 도와준 여러 동기들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인사를 드린다.

우리 동기 임원님들도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식물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 진균 Fungi

1

편집위원회

## 세균보다 사람에게 더 가까운 진균

앞서 세균 편에서 간단히 살펴봤듯이 미생물은 보통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현미경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생물로, 일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몇몇 미생물은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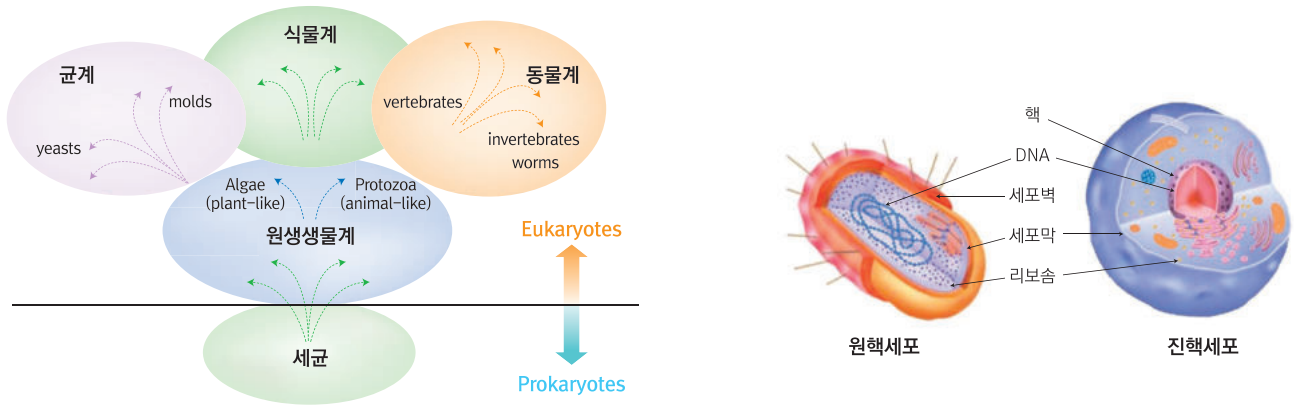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확대해야만 관찰이 가능한 미생물은 크게 바이러스, 원핵생물, 진핵생물의 3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세포의 형태를 지니지 않으며 단백질로 된 막 속에 DNA 혹은 RNA와 같은 유전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바이러스(Virus)를 별도로 분류하되, 세포의 형태를 띠는 미생물은 핵막의 유무에 따라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구분하고 있다.

**원핵생물(Prokaryotes)**은 세포내 핵의 요소가 되는 물질이 있으나 핵막이 없어 핵의 구조가 없는 생물로서 세포의 구조가 극히 간단하고 원시적인 생물을 말하며, 세균을 비롯하여 마이코플라즈마, 클라미디아, 리켓치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진핵생물(Eucaryotes)**은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지며 세포질 속에 여러 가지 소기관을 지니고 있는 생물로서 고등식물이나 동물의 세포와 같이 고도로 진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효모와 곰팡이를 포함하는 진균류나 원충류가 해당된다.

아주 쉽게 말해 세균이 원핵생물인 것에 비해 진균은 진핵생물로, 상대적으로 세균에 비해 사람에게 더 가까운 고등생물에 속한다.





생명체의 분류

**진균 - 동물도 식물도 아닌 독립된 균계**

진균(Fungi)은 몸의 구조가 간단한 하등균으로서 핵막을 가지고 있는 진핵생물의 한 종류로 효모, 버섯, 사상균 등을 포함한 10만-20만종 이상의 균종으로,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자연계에서 부패균으로 존재하며 자연환경의 순환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생체에 침범하여 국소감염 및 전신감염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인체에 병원성이 있는 것은 300종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진균의 대부분은 불완전균류 (Fungi imperfecti)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는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이분하고 진균은 하등식물로 취급하였으나, 그 후 진균의 생물학적 특징인 세포 구조와 화학적 구성, 영양의 섭취형태 등이 알려지면서 독립된 진균계로 확립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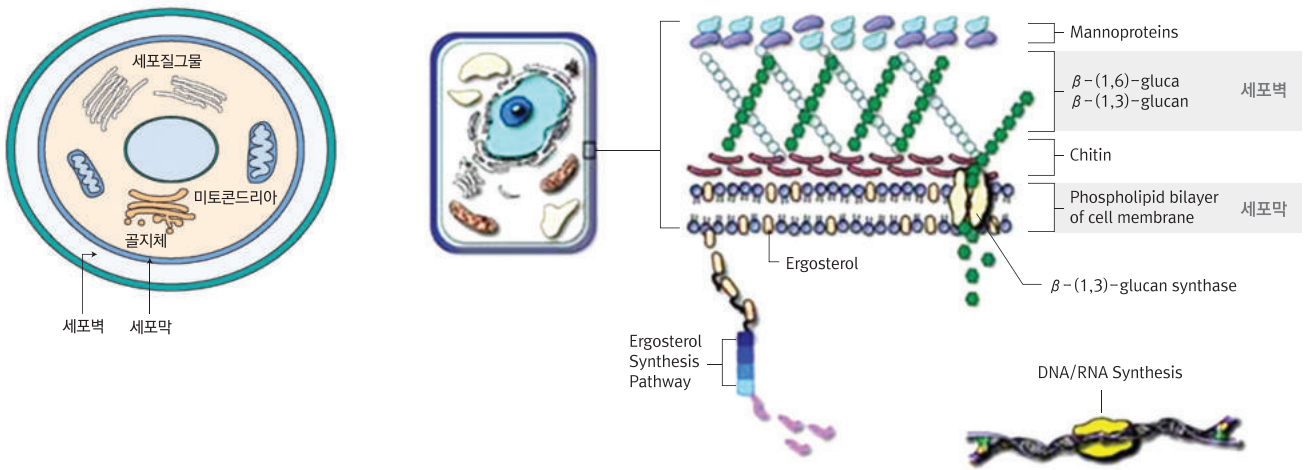
즉, 식물에 가까워 보이지만 세포벽이 셀룰로오스로 되어 있는 식물과 달리 키틴, 글루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일반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하여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또 동물처럼 사냥을 하여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없고 운동성 역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독립된 균류로 불린다.

따라서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에 붙어서 번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에 침투하여 기생하면서 양분을 흡수하기도 한다.

## 진균 = 곰팡이(사상균) + 효모

### 구조

생물학적으로 식물과 유사한 진핵세포지만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며, 세포질 내 소기관 및 핵은 일반 진핵세포와 유사하다. 단단한 세포벽과 세포질막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세포벽 중합체에는  $\beta$ -글루칸, 키틴 및 당단백 등이 있고 세포질막에는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함유되어 있어 더욱 탄탄한 막구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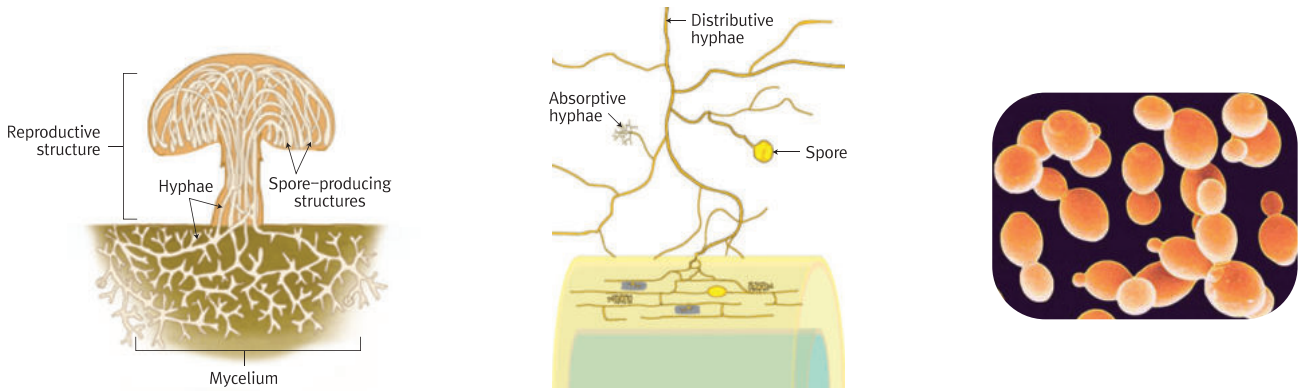
진균세포 모식도

### 형태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균사체의 유무에 따라 균사가 풍부한 곰팡이(사상균)와 구형 혹은 난형의 효모균으로 대별하며, 유성생식의 형식에 따라 조균류(Phycomycetes), 자낭균류(Ascomycetes), 담자균류(Basidiomycetes) 및 아직 유성생식의 형식이 알려지지 않은 불완전균류(Fungi imperfecti)로 분류한다.

**곰팡이(mold)** : 사상균(Filamentous fungi)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균사와 포자로 구성된다.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 있는 균사(팡이실; Hyphae)는 양분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균사가 반복적으로 가지를 쳐서 그물 모양을 이룬 것을 균사체(Mycelium)라고 한다.

포자(흄씨; Spore)는 증식을 위한 주요 생식기관이며 진균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의 포자를 형성하는데, 특히 서식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포자를 형성하며, 물리적 화학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곰팡이의 독특한 색은 바로 포자의 색이다.



곰팡이와 효모

**효모(Yeast)** : 균사체를 만들지 않고 공 모양 혹은 타원형의 단세포로 대개 출아법/발아법 (Budding)에 의해 증식하나 세포분열을 하는 종도 있다. 실험실에서 배양이 쉽고 번식력이 강하다는 점과, 대장균보다 고등한 생물이라는 점 때문에 생물학과 유전공학에서도 중요한 실험체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형성 진균(Dimorphic fungi)** :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진균과 일부 효모는 실온이나 25℃에서 균사체형을 보이나 37℃에서 배양시에는 효모상의 두 가지 형태를 교대로 나타내는 이형성(Dimorphism)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Fungus	Blastomyces	Coccidioides	Histoplasma	Paracoccidioides	Sporothrix
In vitro (25℃)	 Mold	 Mold	 Mold	 Mold	 Mold
In vitro (37℃)	 Mold	 Spherule	 Yeast	 Yeast	 Yeast

진균세포의 이형성





## 신완균(7회) 동문 장학기금 전달식 열려

지난 11월 22일(수) 12시 30분 모교 학장실에서 황완균 학장 주재로 '신완균(7회) 동문 장학기금 1억원 전달식'이 열렸다.

신완균 동문은 약학대학 재학 중 정말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하에 몹시 고생한 기억을 가지고 1965년 모교를 졸업, 첫 직장으로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한성약품이라는 도매상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부전약국을 20여년 운영하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어나가다 문득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다'는 자각에 1987년 한영약품에 합류하게 된다.

호사다마랄까 회사를 맡아 순탄하게 키워나가던 중 1997년 IMF 사태를 맞아 회사는 부도상태에 이르렀고, 경영책임을 맡고 있던 상황에서 연대보증이라는 현실의 뒷에 걸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간절한 열망으로 회사 정상화의 책임자로 추대되어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비상한 각오로 동분서주한 끝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한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 아이들 키우느라 생고생한 기억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오버랩 되어 오랜 시간 가슴 깊은 곳에 머물고 있다. 일을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생각도 잠시, 돌아가신 김명섭 회장이 현업에 계실 때 구주계약으로 부르는 바람에 다시 신발끈 조여 매고 출근,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던 회사를 맡아 5년 7개월간 분투노력한 결과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약대 졸업 후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다는 말은 지금까지 무언가를 향해 끝없이 일을 해 올 수 있었다는 말의 다른 의미로 해석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지만, 이제야말로 오랜 약업현장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느낀 신완균 동문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후배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장학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셨다.



살아오면서 많은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고, 한편으로 본인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 현재도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지만 자녀들이 번듯하게 일가를 이루었고, 동고동락하는 부인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의 삶에 더해 평생 전공과 관련된 부류의 책만 의무감으로 읽어 온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 인문학적 향기가 나는 세계를 꿈꾸겠노라는 말씀을 하시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다.

황완균 학장은 이 기금을 '약학대학 신완균 장학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달식에는 신완균 동문과 함께 평생의 멘토이자 이번 장학금 쾌척의 동기를 부여하신 손동헌 명예교수님이 우정 자리를 같이해 주셨다. 인연이 닿아 손교수님 휘하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밟는 등 꾸준하게 교류를 계속해 오며, 본인의 어려웠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기회 닿을 때마다 후배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는 스승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살던 터였기에 전달식에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쁨이 두 배로 커졌다는 덕담을 남기셨다.

학교측을 대표하여 황완균 학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손의동 교수, 박희용 교수, 그리고 동문회 김수배 수석부회장과 김광식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고마움을 전했다.



## 약대 손의동 교수, 나동희 교수 영광의 학술상 수상

대한약학회 학술대회(10월 19-20일)에서 '약학교육상'은 교육발전에 공헌한 손의동 교수가, '젊은 약학자상'은 최근 Nature Nanotech에 논문이 게재된 공로로 나동희 교수가 영예를 차지



학회장, 대한약학회장, 중대 ROTC 동문회장을 역임한 외에 대한약사회 약학발전위원회, 교육연장특별위원회 위원 및 상임 이사, 약학교육평가원 및 보건 의료국시원 이사로 봉사하면서 약학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어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손교수는 이미 후즈후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를 비롯하여 약사금탑상, 동암 약의상, 보건산업표창 등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손의동(22회) 교수(약학교육상)는 6년제 약사시험과목개선 연구 총괄책임자를 비롯하여 BK연구단장, 학장, 대한약리

모든 분들과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더 열심히 교육과 연구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상 직후 손교수는 “도와 준

또한 모교 나동희 교수(젊은 약학자상)는 바이오베터(Bio-better) 의약품 개발을 위한 펩타이드/단백질 약물 PEGylation 연구와 덴드리머(dendrimer)를 이용한 나노메디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PEGylated peptides의 역상분배거동 기전 규명 연구결과를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잡지인 Analytical Chemistry(IF 6.320)에 발표하였고,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나노구조체 디자인 연구결과를 Nature Nanotechnology(IF 38.986)에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학술대회에서 젊은 약학자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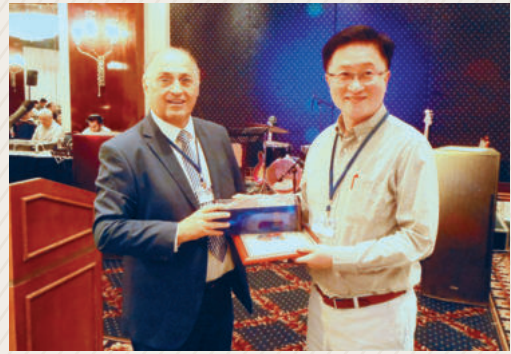




## 약대 김홍진 교수,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Oncology” 학회 연구상 수상

모교 김홍진(22회) 교수는 지난 10월 5~7일에 아테네에서 개최된 “the 22nd World Congress on Advances in Oncology” 학회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에 대한 연구 성과가 우수함을 인정받아 “Outstanding Achievements in Oncology 2017 Award” 상을 받았다.

자궁경부암은 세계적으로 4번째로 흔한 여성암으로 아직까지 진단의 정확도가 높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세포진 검사는 1950년대부터 자궁경부암 초기 검진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민감도가 낮은 단점이 있고 실제로 자궁경부병변을 검출하는데 민감도는 51%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홍진 교수 연구팀은 세포진 검사에서 채취한 동일한 검체에서 종양 바이오마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과 혈액에서 종양관련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기반으로 자궁경부암 및 자궁경부전암을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다. 그 결과 자궁경부조직에서 바이오마커 검출을 통해 91%의



민감도 및 96%의 특이도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었고 또한 혈액에서 종양관련 단백질에 대한 항체 검출을 통해 90%의 민감도 및 82%의 특이도로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수 있어 자궁경부암 검진의 유용한 바이오마커로서의 사용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위의 내용은 “Oncotarget” 저널에 게재 예정되어 있다.



## 강승조(3회) 동문이 이끄는 (주)이-글 벳 무균주사제 독일 EU GMP 인증 획득

우리 동문회 강승조(3회) 동문이 대표로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출선도기업인 (주)이-글 벳은 국내 동물약품업계 최초로 무균주사제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방식을 인정받는 EU GMP(유럽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European Uni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획득해 유럽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이-글 벳의 강태성대표는 “이번 EU GMP 인증을 통해 해외에서 이-글 벳의 우수한 시설과 품질관리 역량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해외로의 제품 수출확대뿐만 아니라 선진국 시장 진출 및 해외 유명 글로벌 제약사들과 주사제에 대한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제약업계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 납부, 작은 정성이 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회장단회비		600,000원
21회	홍종오, 김수배, 김진자, 노재하, 백운경, 이승호 최병철, 한성희, 한상윤, 김중효	26회 김정수A, 반수호, 유영한, 한갑현
22회	강희윤, 고석순, 최광훈	27회 곽나운
23회	김수종, 박종화	28회 이해룡
24회	이광섭, 이범도, 함삼균	29회 류형준
25회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30회 김광식, 윤미숙, 이장무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0회 김홍진, 김현태,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임경원
3회	강승조, 손석우	21회 고영근, 송진용, 안병현, 이상준, 한찬수
4회	이창우	22회 손의동, 오황영, 이명옥, 이현희, 전철호
5회	김영배	23회 김영출, 박상진, 박희용, 홍순욱
6회	박정배, 안병한, 유상열	24회 장규옥, 임무호
7회	이기안, 정재일, 김영일, 박명신, 서명규	25회 김희섭, 백광현
8회	박번일, 배영애, 조의환	26회 정교현, 진희억, 하재일
9회	권혁구, 이규진, 이근배	27회 윤영한, 민병희, 박수길, 오순용, 오흥설
10회	유정사, 박호일, 이홍수, 방순환	28회 이영주
11회	고승하, 김창중, 김미자	29회 김은진, 박웅삼, 한일룡
12회	노덕재, 이관하, 김 구,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성우	30회 김해승, 김혜수, 신일균, 최병태
13회	구연홍, 윤해선, 문재빈, 임유재, 최창엽	31회 김성민, 오대근
14회	김동원, 김윤국, 구종모	32회 안광열, 이경우, 정영복
15회	조찬취	34회 김보원, 전형수, 한일권
16회	최창원	35회 최규룡, 서유정, 양윤정
17회	김성지, 장재인, 신상직	38회 최은영, 이재훈, 최은주
18회	강응모, 김애경	41회 김소연
19회	이경옥	46회 원현식

일반회비		30,000원	
11회	강봉천, 구자역, 김학진, 남복석, 안홍신, 유홍문 이명옥, 이범진, 전창환, 최계순, 하만웅	30회	강승역, 강현주, 고은숙, 김상의, 김완기, 라미숙 문미래, 송정숙, 원주현, 이경숙, 이호일, 전기남 조민숙, 최정진, 홍염미
12회	김대건, 김동욱, 김용환, 우홍길, 유성규, 이순우 이정희, 임순성, 최덕구	31회	유영숙, 이정희, 류문숙, 강영관, 유두종, 김도형
13회	김창식, 신석준, 최승기, 최창조	32회	정세진, 김현경, 채영주, 안승희, 김형기, 나희진 박재홍, 이명선, 정현삼
14회	김명수, 김원순, 김진행, 이강련, 전영표, 정도연 조병화, 채성기, 현수홍, 현혜경, 홍성철	33회	김영재, 이종탁, 윤종배
15회	김용규, 김윤빈, 김형수, 남석우, 박태호, 송현숙 이명숙, 이인석, 진총렬, 황인영	34회	김용수, 김영화, 김현숙, 민성철, 이 준, 이선민 진용균
16회	김선기, 신규언, 윤영위, 조연심	35회	강의석, 김성훈, 양자영, 김주희, 우난숙, 이화순
17회	원종천, 최해광	36회	박종구, 방극상
18회	양만기, 여운숙, 육득윤, 이복숙, 최정순, 홍현식	37회	김찬배, 서승희, 한덕희
19회	고문찬(고재무), 김동희, 남윤수, 박운홍, 배영덕	38회	정필련, 성치순, 현수윤
20회	김길주, 김영식, 남덕자, 방금숙, 송열호, 이광영 이재형, 이종훈, 윤춘수, 정금숙	39회	김상래
21회	강성무, 강인모, 김구영, 김용주, 백기홍, 전명선 정현수, 조 북	40회	장미라
22회	김인선, 김태일, 박동우, 이명수	41회	최현진, 박영진
23회	나용태, 임창영, 천경호	42회	최지혜, 문성원, 이창경, 김혜진
24회	김정무, 박관수, 오세홍, 정상수, 황규진A, 홍용기	43회	장선영
25회	김선열, 김창현, 권세형, 김태원, 이수영, 이승정 이영제, 이동규	44회	유정량, 정의찬, 고정봉
26회	김봉일, 나종우, 박승순, 손영득, 신국희, 오승주 이순아, 이희영,	45회	고기현, 박성희, 김지하
27회	전명수, 이연숙, 조광호	47회	김영준
28회	한성호, 이혁빈, 김상범	49회	김성근
29회	장우성, 민희정, 이강현, 심미선, 강선영	51회	김상아
		53회	김가람
		55회	석형남, 박진철
		56회	고철우
		60회	변성민





2018년 시작입니다.

새로운 충전!

무리고 순통해 한창하는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 2017-2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본동문회	2,000,000	의약과학	이정욱
2	본동문회	2,000,000	보건사회임상약학	김민수
3	본동문회(손동헌장학금)	1,000,000	제약학	남기현
4	본동문회(김명섭장학금)	2,000,000	제약학	이희주
5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솔이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혜란
7	본동문회	1,000,000	약학	변수현
8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서유미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부	이정환
1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정민경
11	본동문회	1,000,000	약학	최동균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	편도현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홍효빈
14	본동문회	900,000	약학	조준호
15	본동문회	900,000	제약학	최주현
16	본동문회	800,000	약학부	강지선
17	본동문회	800,000	제약학	강진국
18	본동문회	800,000	약학부	김재천
19	본동문회	800,000	약학부	박소영
20	여동문회	1,000,000	약학부	박유빈
21	남상구장학금	1,000,000	제약학	박승찬
22	남상구장학금	1,000,000	약학부	송우석
23	남상구장학금	1,000,000	약학	황윤정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24	26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강수희
25	26회동기회	1,000,000	약학	강영우
26	강서동문회	1,000,000	약학	김효정
27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김민정
28	안산동문회	1,000,000	약학	인정렬
29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	이유나
30	천안동문회	1,000,000	제약학	김준하
31	28회동기회	1,000,000	제약학	김은경
32	나사모동문회	1,500,000	약학	김지수
33	생약반	1,000,000	제약학	오민아
34	생약반	1,000,000	제약학	이영담
35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김현균
36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	박수민
37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부	민규태
38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배다영
39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권미준
40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	선동완
41	칼라무스	1,000,000	약학	김예영
42	칼라무스	1,000,000	약학	박세영
43	칼라무스	1,000,000	약학	박소현
44	칼라무스	1,000,000	약학	윤형식
45	칼라무스	1,000,000	제약학	최원열
<b>합 계</b>		<b>47,000,000</b>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올 겨울은 무척 추웠다.  
동기들 그룹채팅방에 파주에 사는 친구 김상각군이  
울곡자운서원에서의 목련잎 봉우리 사진을 올렸다.  
매서운 혹한에도 간간이 쪼이는 강렬한 햇빛은 어쩔 수 없이  
봄을 부르고 있는데 회보가 회원님들에게 도착할 때 즈음...  
대기는 어떤 상태일까?

박희용(23회)  
편집위원

곧 구순(九旬)이 되시는 아버지는 당연히 기력이 전만 못하시고  
보행에 불편함이 있으며 TV 소리를 좀 키워야 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고혈압이나 당뇨는 물론 다른 어떤 만성질환도 안키우신다.  
덕담삼아 건강비결을 묻는 이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밖에!  
"보통 새벽 세시쯤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빈 속에  
담배 한대 태우시고 바로 이어 차가운 콜라 한 캔 마시는 것을  
평생 잊지않고 해 오시는 중"이라고!

김광식(30회)  
편집위원

“어느 대학 나오셨나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요.”  
“오! 명문대 나오셨네요.”  
네 동문님, 우리 중앙약대 동문께서 지금까지 이룩하신 명성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어 가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나 유명한 데는 동문님들의 노력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실력연마 및 발휘, 연구, 약사회무,  
아이디어 제공, 행사 참가, 노력봉사, 회비 지원 등에서 다른 곳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문님! 더욱 발전하기 위한 물심양면의 지원이 절실  
합니다. 회비도 열심히 내 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 주십시오.  
더욱 힘을 내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국민건강연구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지켜온 일동제약...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으로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ILDONG** 일동제약  
SINCE 1941





# 식사시간이 즐거워집니다!



## 식욕부진, 성장부진에 트레스탄



제품명 트레스탄 성분 및 함량 1캡슐 중 오토르산시프로헨타딘(KPC) 1.5mg / di-염산카르니틴(KPC) 150mg / L-리신염산염(KP) 150mg / 시아노코발라민(KP) 1mg / 첨가제(타르색소) 적색40호, 황색5호, 청색1호  
 성분적색의 캡슐제이고, 내용물은 엷은 홍색의 분말 효능·효과 식욕부진, 성장부진 용법·용량 성인 :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 저녁 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부터는 1일 2회, 1회 2캡슐을 아침, 저녁 식전에 복용 / 소아(7~12세) : 1일 1회, 1캡슐을 저녁 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부터는 1일 2회, 1회 1캡슐을 아침, 저녁 식전에 복용 / 소아(3~6세) : 1일 1회, 1/2캡슐을 저녁 식전에 8일간 복용, 이후부터는 1일 2회, 1회 1/2캡슐을 아침, 저녁 식전에 복용,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포장단위 60캡슐(병) \*소비자상담전화 : 080-082-1234(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2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http://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mailto:capa21@hanafos.com)